



©MICHELIN2011

3년연속의 영예

『미슐랭 가이드 교토(京都)·오사카(大阪)·고베(神戸)·나라(奈良)2012』에 뽑혔습니다

호텔 부문:교토에서 최고의 평가 “4빨간 파빌리온”

레스토랑 부문:별저 「교요리 아와타산장」이 “별하나”를 획득

작년에 이어, 교토호텔 오쿠라는 『미슐랭 가이드(Michelin guide)

교토·오사카·고베·나라2012』의 호텔 부문에 있어서, 교토에서 최고 평가인 “4빨간 파빌리온(최상급의 쾌적함)”을 주셔 게재된 교토의 14호텔중, 탑에 랭크되었습니다.

또, 히가시야마의 아와타구치에 있는 별저 「교요리 아와타산장」은 “별하나”에 뽑혀, 특히 서비스나 설비 등의 쾌적성을 나타내는 스푼/포크의 마크는 4개의 적색(최상급의 쾌적함)을 획득하고, 교토에서는 3번째가 되는 높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는 같은 마크의 수라도 적색은 “보다쾌적”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오로지 1888년의 창업 이래, 이용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의 선물이고, 또 우리들을 떠받쳐 주신 각 관계회사의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으므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세계각국의 손님을 마중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호텔로서 매진해 갈 것입니다.

옛 도시 교토에서 가장 역사 있는 호텔로서, 또 현재 (지금)의 교토의 숨결을 느끼는 호텔로서, 최고의 휴식과 편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토호텔 오쿠라 총지배인